

성인진입기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유형 연구

최은경* · 임정하**

Ⅰ 알기 쉬운 개요

오늘날 청소년들이 교육을 마치고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시기가 점차 지연되면서 성인진입기라는 새로운 발달단계가 등장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성인진입기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보고한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관계를 유형으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섯 가지 유형이 나타났고, 이를 부모와 강한 유대형, 중간 유대형, 약한 유대형, 부 편향 유대형, 모 편향 유대형으로 명명하였다. 80%가 넘는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아버지, 어머니 모두와의 관계에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당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의 반 정도는 매우 강한 유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대학생들 중 소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 한 사람에게만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소수는 부모 모두와의 유대감이 약하게 나타났다. 나아가 부모와 강한 유대감을 가진 대학생들의 자아정체감이 약한 유대감을 가진 대학생들보다 더 잘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중심적인 한국문화에서 성인진입기 자녀와 부모 간의 유대감이 자녀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고려대학교 대학원 지속가능생활시스템융합전공 박사과정 수료, 주저자, j97cekj@korea.ac.kr

**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교신저자, jhlim@korea.ac.kr

투 고 일 / 2022. 3. 7.

심 사 일 / 2022. 4. 28.

심사완료일 / 2022. 5. 10.

DOI/10.14816/sky.2022.33.2.163

Ⅰ 초록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성인진입기 대학생들이 지각하는 아버지 및 어머니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부모-자녀관계의 유형을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또한, 부모-자녀관계 유형에 따라 대학생의 정체감 발달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410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잠재프로파일 분석, 일원변량분석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관계의 친밀, 헌신, 존경, 엄격 차원을 바탕으로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이용해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를 유형화한 결과, 다섯 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를 강한 유대형(41.7%), 중간 유대형(45.1%), 약한 유대형(3.4%), 부 편향 유대형(1.5%), 모 편향 유대형(8.3%)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부모-자녀관계 유형에 따라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한 유대형에 속한 대학생들은 약한 유대형에 속한 대학생들보다 자아정체감 발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자녀관계가 성인진입기 자녀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발달 자원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을 위한 상담 및 교육현장에서 부모-자녀관계 지원 및 중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부모-자녀관계 유형, 대학생, 성인진입기, 자아정체감, 잠재프로파일 분석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부모-자녀관계는 일생을 통해 지속되는 관계로 자녀의 인지 및 정서발달, 그리고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영향력 아래 자녀들은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 1970년대 이후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성인기 과업수행 시기가 점차 늦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교육을 끝마치고, 직업을 확정하고, 부모에게서 독립하는데 점점 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Rice & Dolgin, 2009). 이런 변화의 결과로, 발달심리학자 Arnett (2000)는 20세경에 청소년기에서 성인 초기로 급격하게 전환하기보다는 10대 후반부터 20대 정도까지 성인진입기(emerging adulthood)라는 새로운 단계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성인진입기 자녀를 둔 부모는 양육의 연장선상에서 계속해서 자녀에게 심리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김누리, 신나나, 2017; Arnett, 2007; Nelson, Padilla-Walker, Christensen, Evans & Carroll, 2011). 특히 대학생 시기, 즉 20대 초반은 청소년기의 속성을 일부 지닌 채 성인기로 이동 중이라는 점에서 과도기적 시기이다. 이 시기에 부모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이 어려운 경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원이 지속되며, 이에 따라 자녀에 대한 관여와 개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김은정, 2015). 이때 부모-자녀관계의 질이 자녀의 독립적 성숙과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 등 성인기 진입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지선, 정혜정, 2016). 이러한 측면에서 부모-자녀관계는 성인진입기 대학생에게 여전히 중요한 발달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부모-자녀관계의 중요성은 문화 보편적으로 강조된다. 하지만, 부모-자녀관계의 특성은 문화권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 부모-자녀관계의 특성과 자녀의 발달 결과와의 관련성도 해당 특성이 발생하는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구 문화권의 부모-자녀관계를 특징짓는 수용 대 통제 또는 애정 대 거부 차원을 중심으로 한 기존 연구들(김은정, 이해란, 2017; 소찬은, 한세영, 2021; 윤혜영, 강지현, 2015; 장희순, 2020)을 바탕으로 한국사회 부모-자녀관계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 또한, 서구문화에서는 자녀의 독립성과 개별성, 자율성을 강조하지만, 한국문화에서는 서구와는 달리 부모-자녀 간의 친밀한 유대관계와 동일체 의식이 깊게 뿌리내리고 있다. 전통적으로 상호의존성 중심의 관계주의로 대별되는 한국문화에서 최상진(2000)은 한국의 부모-자녀관계를 부자유친성정(父子有親性情)으로 설명한 바 있다. 이는 부모와 자녀는 매우 가깝고 친밀한 관계로, 자녀가 느끼는 기쁨과 고통이 부모의 기쁨과 고통이 되고, 반대로 부모가 느끼는

감정도 자녀의 것으로 인식되는 부모와 자녀 간 동일체감을 바탕으로 하는 관계라고 보는 것이다. 또한 부모와 자녀는 서로에게 측은지정(惻隱之情)을 갖는 관계로, 자녀는 부모에 대해, 부모는 자녀에 대해 항상 미안함, 측은함, 고마움 등과 같은 마음을 거의 무의식 또는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김지원과 이정운(2014)도 한국사회에서 자녀는 부모와 강한 일체감을 느끼며 부모의 헌신으로 부모와 강한 유대감을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최인재(2006)는 이러한 특성을 종합해 한국의 부모-자녀 간 유대관계를 다음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해 평가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친밀 차원으로 자녀가 부모를 친하고 편안하게 느끼는 마음을 평가하였고, 헌신 차원으로 자신을 위해 희생하는 부모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존경 차원으로 부모를 본받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평가했으며, 엄격 차원으로 부모의 권위를 두려워하거나 자신의 의사가 존중되지 못한다고 느끼는 마음을 평가하였다. 이들 중 특히 헌신 차원은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부모-자녀간의 고유한 특성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한국사회 부모-자녀관계의 문화적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하는 이들 네 가지 차원, 즉 친밀, 헌신, 존경, 엄격을 중심으로 부모-자녀관계의 유형을 구분해 보고자 한다.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예: 김남일, 2020; 장희순, 2020; 정순심, 문혁준, 2020)에서 부모 중 한 사람과의 관계만을 반영해 부모-자녀관계로 평가했거나 부모 모두와의 관계를 평가했어도 아버지와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를 각각 분리하여 분석한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들 모두 부모-자녀관계의 부분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자녀의 입장에서 아버지와의 관계와 어머니와의 관계를 동시에 경험하고, 이들 두 관계가 늘 유사하지는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와 모를 구분한 관계적 특성을 동시에 반영하여 부모-자녀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나아가, 사회변화에 따라 부와 모의 역할에 대한 전통적 구분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나, 부모 각각의 역할이나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일부 차이가 존재한다. 전통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 모델인 '엄부자모(嚴父慈母)'와 같이 부-자녀 관계와 모-자녀 관계는 다른 방식으로 형성되고 기능할 수 있다. 엄부자모는 어머니의 자애로운 손에서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동시에 자녀의 잘못을 엄격하게 다루는 엄한 아버지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으로 부모의 상호보완적인 양육태도를 의미한다(정옥분, 2017). 전통사회에서는 부성의 두려움과 모성의 사랑이 함께 어우러져 인격의 기본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또한 아버지를 엄친(嚴親), 어머니를 자당(慈堂)이라고 하여 아버지의 엄한 역할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엄함과 친함이 공존하는 것을 자녀를 양육하는 올바른 태도로 간주하였다(정옥분, 정순화, 2019). 임정하와 정옥분의 연구(2004)에서는 청소년 자녀 양육에 있어 자녀를 믿고 존중하며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가르침을 주는 것은 부모의 공유된 역할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녀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권위와 이성적 판단

을 바탕으로 자녀의 역량을 독려하는 역할은 상대적으로 주로 아버지에게서 높게 나타났고, 자녀를 인정하고 수용해 주며 애정으로 정성껏 돌보는 역할은 어머니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최인재의 연구(2006)에서도 대학생 자녀가 지각하는 어머니에 대한 표상에서는 자애 요인이 가장 높았고, 아버지에 대한 표상에서는 엄격이나 존경 요인이 자애나 헌신 요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구적 가치관이 한국의 가정에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부모 상(像)인 엄부자모의 형태가 부모-자녀관계에 남아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자녀관계, 모-자녀관계를 구분하여 평가한 후, 이들을 동시에 반영해 부모-자녀관계를 유형화하고자 한다.

한편, 기존연구에서는 부모-자녀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하위 차원에 초점을 두어 변인중심적 접근(variable-oriented approach)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부모와의 일체감과 부모의 헌신을 높게 인식할수록 대학생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고(전선옥, 김정원, 2016), 부모의 지나친 과보호적 양육은 대학생 자녀의 자율성을 침해함으로써 독립된 삶을 지연시켰다(이용화 외, 2014; Schiffrin et al., 2019; Segrin, Woszidlo, Givertz, Bauer & Murphy, 2012). 이러한 접근방식은 부모-자녀관계가 자녀의 발달적 결과에 미치는 개별적인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게 해 준 이점이 있지만, 부모-자녀관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개인 안에서 어떻게 결합하여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Kerr, Stattin & Ozdemir, 20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중심적 접근(person-oriented approach)인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이용해 부모-자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잠재프로파일 분석은 기존의 군집분석에 비해 그 분류의 정확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신효정, 이지희, 2018; Muthén & Muthén, 2000).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몇몇 연구에서도 이러한 접근법을 시도한 바 있다. 예를 들어, 임정아와 조아미의 연구(2018)에서 20세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 양육방식을 유형화한 결과, 애정부족형, 애정만족·과잉간섭형, 애정만족·과잉기대형, 일반형, 애정만족·비일관형의 다섯 가지 유형이 보고된 바 있다. 김수정과 박혜준의 연구(2020)에서는 성인진입기 자녀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를 무관심형, 허용형, 평균형, 권위주의형, 권위형, 헬리콥터형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이들은 부모-자녀관계를 유형화하는 방식은 개인 단위에서 부모-자녀관계를 지각하는 수준이 다양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이 연구들은 모두 부모 각각과의 관계를 동시에 고려하지는 못했다. 또한, 이들 연구는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평가에서 한국적 맥락의 특성이 잘 반영되지는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의 헌신이나 부모에 대한 존경과 같이 한국적 맥락의 관계 특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고 부-자녀관계와 모-자녀관계를 동시에 고려해 성인진입기 대학생 자녀들이 지각한 부모와의 관계를 유형화하고자 한다.

덧붙여,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관계 유형에 따라 성인진입기 대학생의 자아정체감 발달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자아정체감이란 자기존재의 동일성과 독특성을 지속하고 고양시켜 나가는 자아의 자질을 의미한다(박아청, 1996). 확고한 자아정체감을 지닌 사람은 다른 사람과 같은 동기, 가치 등을 공유하고 있더라도 자신을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과는 분리된 독특한 개인으로 인식하며, 자기일관성과 전체감을 갖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다. Arnett (2000)는 성인진입기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으로 자아정체감 탐색에 주목하였으며, 이 시기를 끊임없이 선택해야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는 시기로 보았다. 현대 사회에서 취업, 결혼 및 출산 시기가 지연되면서 오늘날의 20대는 청소년도 성인도 아닌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녀가 부모의 헌신과 희생을 높게 지각하고, 부모와의 관계가 친밀하다고 지각할수록 자아정체감(김지원, 이정윤, 2014; 민지애, 유금란, 2015) 및 자아분화(최명선, 문은미, 2009) 수준이 높았다. 또한, 자녀가 부모 양육행동을 수용적, 애정적, 자율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적극적인 자아탐색을 통해 통합된 자아정체감을 발달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오옥선, 2020; 최임숙, 윤석환, 2016; Doumen et al., 2012). 반면에 부모가 무관심한 양육행동을 보일 경우, 자녀는 자아정체감과 관련한 문제나 결정을 회피하는 경향이 높았다(Smits et al., 2008). 이를 고려해 보았을 때, 성인진입기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자녀관계 유형에 따라 자아정체감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성인진입기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자녀관계의 유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각 유형에 따라 자아정체감 발달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안된 성인진입기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2. 연구문제

- 1) 성인진입기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의 유형은 어떠한가?
- 2) 성인진입기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은 부모-자녀관계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41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에서 남학생은 206명(50.2%), 여학생은 204명(49.8%)이었다. 연구대상의 평균 연령은 22.3세($SD=.49$)였다. 학년분포는 대학교 1학년은 85명(20.7%), 2학년은 78명(19.0%), 3학년은 103명(25.1%), 4학년은 144명(35.1%)이었다. 부모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부: 51.2%, 모: 54.2%)이 가장 많았고, 아버지의 직업은 전문직(14.8%), 행정 및 관리직(14.5%), 사무 관리직(14.3%) 순으로 많았고,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37.3%), 전문직(17.2%), 판매 및 서비스직(13.8%) 순으로 많았다.

2. 측정도구

1)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

부모-자녀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최인재(2006)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타당화한 부모-자녀관계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개의 하위요인인 친밀, 헌신, 존경, 엄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자녀관계 20문항, 모-자녀관계 20문항에 대해 자녀가 보고하는 방식이다. 친밀(7문항)은 자녀가 부모를 비밀과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친구처럼 편안하게 지각하는 정도이다. 헌신(6문항)은 부모가 자신을 위해 희생한다고 생각하여 부모에 대한 미안함, 안쓰러움, 측은함 등을 지각하는 정도이다. 존경(4문항)은 자녀가 부모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고 부모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본받고 싶다고 생각하고 부모가 자신의 인생과 가치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지각하는 정도이다. 엄격(3문항)은 자녀가 부모를 무섭고 권위적으로 인식하며, 부모에 의해 자신의 의사가 무시된다고 지각하는 정도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있다. 부-자녀관계 문항과 모-자녀관계 문항의 제시 순서는 다르지만 내용은 동일하다. 최인재(2006)는 척도 개발 시 구성타당도 및 공인타당도를 검증하였고, 하위요인별로 Cronbach α 는 부-자녀관계의 경우 .74~.89였고, 모-자녀관계의 경우 .70~.88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하위요인별로 Cronbach α 는 부-자녀관계 .82~.93, 모-자녀관계 .79~.91로 나타났다.

2) 자아정체감 척도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해 박아청(1996, 2003)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한국형 자아정체감 척도를 송현옥(2008)이 축약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기존의 자아정체감 척도들이 포함하고 있는 다차원적인 영역을 포괄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5개의 하위요인 자기수용성, 미래 확신성, 목표 지향성, 주도성, 친밀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수용성(5문항)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정도를 말한다. 미래 확신성(7문항)은 자신의 장래 할 일에 대한 계획에 확신을 갖고 있는 정도를 말한다. 목표 지향성(6문항)은 장래의 자아상을 파악하고 자기 스스로 목표를 지향하는 방향을 신뢰하고 있는 정도를 말한다. 주도성(5문항)은 자신 주변의 일을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실행하려고 하는 정도를 말한다. 친밀성(4문항)은 타인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융통성과 주체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를 말한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식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있고, 부정적 특성 문항의 응답은 역채점 한다. 자아정체감 총점이 높을수록 확고한 자아정체감을 지닌 것을 의미한다. 송현옥(2008)은 구성타당도를 검증하였고, Cronbach α 는 .93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Cronbach α 는 전체가 .93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서울·경기 지역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4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지를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orean Social science Data Center, KSDC)를 통해 제작한 후, 10개의 대학교 커뮤니티 게시판에 모집 안내문을 업로드하여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해당 게시물에 연구 목적과 설문 방법 및 자발적 의사에 따른 연구 참여와 연구결과에 대한 비밀 보장 원칙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다. 응답자는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링크된 URL로 접속하여 자기보고식 조사에 응답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응답자 선정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응답이 있는 자료 6부를 제외한 410부(98.6%)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먼저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의 유형을 알아보기 위해 Mplus 6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정보지수, 분류의 질, 모형비교검증, 집단 내 비율이라는 4가지 통계적 기준을 사용하였다. 정보지수는 AIC, BIC, Adjusted BIC를 이용했으며, 이 값은 작을수록 모형의 합치도가 좋음을 의미한다. 분류의 질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Entropy 값을 사용하였다. Entropy 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보통 .80 이상이면 좋은 모형으로 볼 수 있다(Clark, 2010). 모형비교검증은 LRT(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BLRT(Bootstrap Likelihood Ration Test)를 사용하였다(Berlin, Williams & Parra, 2014). 이 두 방법은 잠재프로파일 이 k개인 경우와 k-1개인 경우를 비교하여 더 적합한 모형을 검증한다. 결과의 p 값이 유의하면, k개의 잠재프로파일 모형이 k-1개의 잠재프로파일 모형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나은 합치도를 제공함을 의미하므로 k개의 잠재프로파일 모형을, 유의하지 않으면 k-1개의 잠재프로파일 모형을 선택한다. 또한, 집단 내 비율이 최소한 표본 수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하였다(Hill, White, Chung, Hawkins & Catalano, 2000). 이상과 같은 모형적합도 지수와 해석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재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하였다. 이후 각 유형에 따라 자아정체감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SPS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 분석

주요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먼저, 부-자녀관계와 모-자녀관계의 평균을 살펴보면, 헌신 요인(부-자녀: $M=3.88$, $SD=.89$; 모-자녀: $M=4.24$, $SD=.72$)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엄격 요인(부-자녀: $M=2.27$, $SD=1.00$; 모-자녀: $M=1.81$, $SD=.83$)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으로 친밀, 헌신, 존경 요인은 모-자녀관계에서 부-자녀관계보다 높았고, 엄격 요인은 부-자녀관계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자녀관계와 모-자녀관계 및 자아정체감 간에도 전반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부-자녀관계 및 모-자녀관계에서의 엄격 요인은 관계 내 요인들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자아정

체감은 부-자녀관계의 헌신 요인을 제외한 모든 부모-자녀관계 요인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표 1
주요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N=410)

	1	2	3	4	5	6	7	8	9
부	1. 친밀	-							
	2. 헌신	.57**	-						
	3. 존경	.66**	.71**	-					
	4. 엄격	-.48**	-.26**	-.26**	-				
모	5. 친밀	.38**	.27**	.28**	-.14**	-			
	6. 헌신	.12*	.35**	.18**	-.03	.59**	-		
	7. 존경	.27**	.27**	.36**	-.05	.74**	.66**	-	
	8. 엄격	-.02	-.14**	-.10	.33**	-.34**	-.24**	-.23**	-
	9. 자아정체감	.20**	.10	.14**	-.25**	.16**	.11**	.16**	-.25**
<i>M</i>	2.96	3.88	3.61	2.27	3.77	4.24	3.88	1.81	3.49
<i>(SD)</i>	(.99)	(.89)	(.92)	(1.00)	(.86)	(.72)	(.83)	(.83)	(.70)

* $p < .05$, ** $p < .01$

2. 부모-자녀관계 유형화 및 유형별 특성

1) 잠재프로파일의 수 결정

부모-자녀관계의 하위 요인인 친밀, 헌신, 존경, 엄격을 유형화 지표로 분석한 잠재프로파일 수에 따른 모형적합도 지수는 표 2와 같다. AIC, BIC, Adjusted BIC는 값이 작을수록 모형 적합도가 좋음을 의미하는데, 이 값은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증가할수록 값이 작아졌다. Entropy 값은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3개에서 6개일 때까지 .80 이상으로 분류의 질이 높았고, 5개일 때 .914로 가장 높은 분류의 질을 보여주고 있었다. 잠재프로파일이 k개인 경우와 k-1개인 경우를 비교하여 어떤 모형이 더 적합한지 보여주는 모형비교 검증 값인 LRT, BLRT 값을 살펴보면 LRT 값은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2개일 때를 제외하고는 유의하지 않았고, BLRT 값은 2개일 때부터 6개일 때까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내 분류 비율은 모두 1%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모형적합도 지수와 해석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잠재프로파일의 수가 5개인 모형을 최종모형으로 결정하였다.

표 2
잠재프로파일 수에 따른 모형적합도 지수

k	df	AIC	BIC	Adjusted BIC	Entropy	LRT ρ	BLRT ρ	집단 내 분류 비율 (%)							
								1	2	3	4	5	6		
2	25	7902.439	8002.843	7923.513	0.779	<.001	<.001	47.6	52.4						
3	34	7622.771	7759.320	7651.432	0.857	.117	<.001	46.8	9.3	43.9					
4	43	7387.582	7560.276	7423.829	0.871	.100	<.001	7.4	39.4	9.6	43.6				
5	52	7285.974	7494.814	7329.808	0.914	.054	<.001	45.1	3.4	1.5	41.7	8.3			
6	61	7207.451	7452.437	7258.872	0.858	.355	<.001	2.7	8.5	31.2	20.5	1.5	35.6		

주. k=잠재 프로파일의 수. df=자유도. AIC=Akaike's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LRT=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BLRT=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s compared with a (k-1) class model. 선택한 모형에 진하게 표시함.

2) 잠재프로파일 유형별 특성

최종모형으로 결정된 다섯 가지 유형별 부모-자녀관계의 하위요인 점수는 표 3과 같다. 표준화된 Z점수($M=0$, $SD=\pm 1$)를 도식화하여 그림 1에 제시하였다. 표준화된 Z점수를 토대로 각 유형의 특성을 살펴보면, 유형 1(45.1%)은 가장 많은 응답자가 속한 집단이었다. 이 유형은 전반적으로 부모-자녀관계에서 친밀, 헌신, 존경, 엄격 요인이 지나치게 높거나 지나치게 낮지도 않은, 중간 정도로 나타났다. 이에 부모와의 유대감을 중간 정도로 보고, 이를 '중간 유대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2(3.4%)는 부모-자녀관계에서 친밀, 헌신, 존경 요인은 다른 유형들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엄격 요인은 전체 평균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 부모와의 유대감이 약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유형 2를 '약한 유대형'으로 명명하였다. 특히 이 유형은 부-자녀관계에서 친밀, 헌신, 존경 요인이 모든 유형 중 가장 낮았다. 유형 3(1.5%)은 부-자녀관계에서 친밀, 헌신, 존경 요인은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엄격 요인은 모든 유형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반면, 모-자녀관계에서 친밀, 헌신, 존경 요인은 모든 유형 중에서 가장 낮았고, 엄격 요인은 가장 높게 나타나 '부 편향 유대형'이라 명명하였다. 유형 4(41.7%)는 두 번째로 많은 응답자가 속한 집단이었다. 이 유형은 부모-자녀관계에서 친밀, 헌신, 존경 요인이 모든 유형 중에서 가장 높았고, 엄격 요인은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에 부모와의 유대가 강한 것으로 보고 '강한 유대형'으로 명명하였다. 끝으로, 유형 5(8.3%)는 부-자녀관계의 친밀, 헌신, 존경 요인은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엄격 요인은 모든 유형 중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모-자녀관계에서는 친밀, 헌신, 존경, 엄격 요인 모두 전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이를 '모 편향 유대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5는 유형 4와 같이 모의 헌신 요인이 모든 유형 중에서 가장 높았다.

표 3
부모-자녀관계 유형별 하위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유형 1 (45.1%)	유형 2 (3.4%)	유형 3 (1.5%)	유형 4 (41.7%)	유형 5 (8.3%)	전체
		<i>M (SD)</i>	<i>M (SD)</i>	<i>M (SD)</i>	<i>M (SD)</i>	<i>M (SD)</i>	<i>M (SD)</i>
부	친밀	2.65 (.68)	1.40 (.40)	3.62 (.75)	3.68 (.74)	1.54 (.63)	2.96 (.99)
	헌신	3.75 (.58)	2.19 (1.01)	4.44 (.49)	4.45 (.48)	2.31 (.79)	3.88 (.89)
	존경	3.41 (.60)	1.96 (.52)	4.08 (.66)	4.27 (.54)	1.99 (.54)	3.61 (.92)
	엄격	2.49 (.86)	2.45 (1.11)	1.56 (.46)	1.88 (.90)	3.06 (1.27)	2.27 (1.00)
모	친밀	3.36 (.61)	1.88 (.69)	1.67 (.52)	4.36 (.50)	4.18 (.65)	3.77 (.86)
	헌신	3.99 (.60)	3.06 (1.05)	1.86 (.44)	4.62 (.43)	4.62 (.47)	4.24 (.72)
	존경	3.45 (.56)	2.14 (.73)	1.67 (.54)	4.46 (.45)	4.35 (.58)	3.88 (.83)
	엄격	2.00 (.81)	2.07 (.78)	2.89 (1.09)	1.53 (.72)	1.86 (.97)	1.81 (.83)

주: 회색 음영이 들어간 칸은 전체 표본의 요인별 평균보다 각 유형의 요인별 평균이 높은 경우에 해당. 진한 글씨는 각 요인별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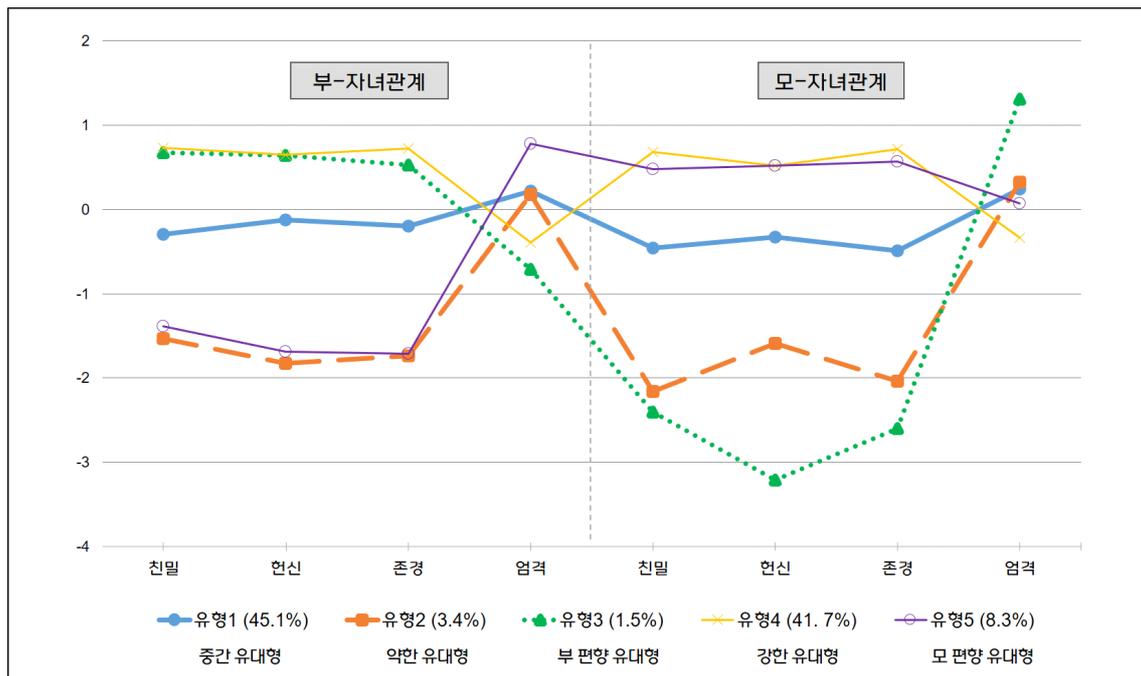


그림 1. 유형별 부모-자녀관계 하위요인 점수 (표준화된 Z점수)

3. 부모-자녀관계 유형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차이

대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유형에 따른 자아정체감 평균을 살펴본 결과, 부모와 강한 유대형에 속한 대학생들의 자아정체감 수준($M=3.65, SD=.72$)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모 편향 유대형($M=3.51, SD=.87$), 부 편향 유대형($M=3.38, SD=.72$)/중간 유대형($M=3.38, SD=.63$), 약한 유대형($M=3.10, SD=.73$)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관계 유형별 자아정체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형별 자아정체감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났다($F=4.45, p<.01$). 이에 Scheffé 방식으로 다중비교검증을 한 결과, 표 4에 제시되어 있듯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강한 유대형으로 분류된 대학생들은 약한 유대형으로 분류된 대학생들보다 자아정체감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부모의 친밀, 헌신, 존경을 높게 지각하고, 엄격은 상대적으로 낮게 지각하는 대학생들이 부모와의 친밀, 헌신, 존경을 낮게 지각하는 대학생들보다 자아정체감 수준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4
부모-자녀관계 잠재계층 유형별 대학생의 자아정체감의 차이 ($N=410$)

종속변수	잠재계층유형	$M (SD)$	F	다중비교 (Scheffé)
자아 정체감	유형 1 (중간 유대형)	3.38 (.63)	4.45**	유형 2 < 4
	유형 2 (약한 유대형)	3.10 (.73)		
	유형 3 (부 편향 유대형)	3.38 (.72)		
	유형 4 (강한 유대형)	3.65 (.72)		
	유형 5 (모 편향 유대형)	3.51 (.87)		

** $p<.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활용하여 한국 사회 성인진입기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지각하는 아버지와의 관계와 어머니와의 관계를 동시에 반영해 부모-자녀관계를 유형화 하였다. 또한, 부모-자녀관계 유형에 따라 대학생들의 자아정체감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았다. 주요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자녀관계에서 친밀, 헌신, 존경, 엄격 요인을 토대로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를 유형화한 결과, 다섯 개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를 부모와 강한 유대형, 중간 유대형,

약한 유대형, 부 편향 유대형, 모 편향 유대형으로 명명하였다. 대학생 자녀들의 대다수인 약 87%는 부모와 중간 유대형이나 강한 유대형에 속했다. 즉 대부분의 대학생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와의 관계에서 전반적으로 중간 수준 이상의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표본의 13% 내외를 차지한 대학생 자녀들은 부 편향 유대형(1.5%) 또는 모 편향 유대형(8.3%), 약한 유대형(3.4%)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 편향된 유대감을 지각하고 있거나 부모와 약한 유대감을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유형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중간 유대형(45.1%)은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친밀, 헌신, 존경, 엄격 요인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모든 하위요인 간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부모 양육태도를 유형화 한 연구들과 비슷한 맥락의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 양육태도를 유형화 한 임정아와 조아미의 연구(2018)와 김수정과 박혜준의 연구(2020)에서는 부모의 관심과 애정, 기대와 간섭 등이 보통 수준이라고 지각하는 일반형(64.8%)이나 평균형(49.6%)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와 내용이 같진 않지만, 대학생들이 부모와의 관계를 지각하는 정도를 비교해 볼 수 있다.

둘째, 강한 유대형(41.7%)은 전반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친밀, 헌신, 존경을 높게 지각하고, 엄격은 상대적으로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에 대한 지각과 관련한 연구(박영신, 김의철, 한기혜, 2003)에서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부모에 대해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부모의 희생과 고생에 대한 존경심과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우리나라 전통 가정에서의 부모 역할 모델인 ‘엄부자모(嚴父慈母)’와는 달리 부모 모두 자애롭고 양육적으로 인식하는 ‘자부자모(慈父慈母)’와도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가사와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새로운 아버지상이 제시되면서, 돌보는 아버지(caring father), 참여하는 아버지(involved father)와 같은 성평등적인 아버지상을 장려하는 개념들이 등장하고 있다(유성경, 방지원, 임인혜, 최보윤, 김수영, 2020; Banchevsky & Park, 2016; Burnett, Gatrell, Cooper & Sparrow, 2011; Marsiglio & Roy, 2012). 이는 어머니를 주 양육자로, 아버지를 생계부양자로 역할을 구분 짓는 기존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아버지는 거칠고 어머니는 부드러우며, 아버지는 엄격하고 어머니는 양육적이라는 전통적 역할구분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한 유대형은 이러한 부모역할 변화가 부모-자녀관계에 반영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셋째, 부 편향 유대형(1.5%)과 모 편향 유대형(8.3%)은 어느 한 부모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편향된 유대감을 느끼는 경우인데,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편향된 유대감을 보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부 편향 유대형의 경우, 아버지에 대한 친밀, 헌신, 존경은 평균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엄격은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었고, 어머니에 대한 엄격은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모 편향 유대형의 경우, 모에 대한 헌신을 강한 유대형과 같이 모든 유형 중에서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아버지의 엄격도 모든 유형 중에서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모 편향 유대형(8.3%)에 속한 자녀가 부 편향 유대형에 속한 자녀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를 더 자애롭고 헌신적으로 지각하고, 어머니와 강한 유대관계를 맺는 대학생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아버지는 엄격하고 어머니는 양육적이라는 전통적 역할구분이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일부 엄부자모의 모습이 잔존해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넷째, 약한 유대형(3.4%)은 자녀가 부모에 대한 친밀, 헌신, 존경은 비교적 낮게 지각하고 있었고, 엄격은 약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유형은 아버지에 대한 친밀, 헌신, 존경을 모든 유형 중에서 가장 낮게 지각하고 있었다. 이 유형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와 약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 아버지와와의 유대관계가 가장 약했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보다 부모-자녀관계 개선을 위한 개입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도출된 유형에 따른 자아정체감 수준을 살펴본 결과, 부모-자녀 간 강한 유대형에 속한 대학생들은 약한 유대형에 속한 대학생들보다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인진입기 대학생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 대해 친밀, 헌신, 존경을 높게 지각하는 강한 유대관계를 가질수록 확고한 자아정체감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은 관계주의 문화에서는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대학생 자녀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최명선, 문은미, 2009)와 유사한 결과이다. 성인진입기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 양육태도를 유형화한 연구(김수정, 박혜준, 2020)에서도 부모가 대학생 자녀에게 정서적 지지와 구조를 제공하는 동시에 자율성을 존중할수록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았다. 또한, 부모와의 일체감과 헌신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대학생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 수준도 높게 나타난 연구와도 그 맥을 같이한다(전선옥, 김정원, 2016).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한국문화에서는 자녀가 부모와 친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자녀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와의 유대관계 정도가 자아정체감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로, 자녀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부모 한쪽만이 아닌 부모 모두의 영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나아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와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은 약한 유대형의 경우 자아정체감 수준이 가장 낮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다른 유형의 자녀들보다 심리적 지원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보고를 중심으로 부모-자녀관계를 측정하였다. 관계란 양측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단일 보고자로부터 측정된 자료만을 이용하여 부모-자녀관계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은 연구결과의 해석이나 적용에 제한점이 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중보고 방식이 이루어진다면 부모-자녀관계 현상을 보다 다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자녀관계 척도의 엄격 요인은 전통적인 한국 사회에서의 엄격의 의미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사회에서의 엄격은 부모의 권위에 대한 존중을 토대로 한 개념이라면, 본 측정도구에 포함된 엄격 문항은 권위주의적 방식의 통제 행동을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추후 연구에서 이러한 부분이 보완된다면,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의 부모역할인 '엄부자모'의 조화로운 양육 특성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측정되며, 해석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횡단 자료를 이용하여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자녀관계를 유형화하여 살펴보았다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발달단계별 부모-자녀관계 유형 및 전이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발달단계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의 특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맥락에서 성인진입기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자녀관계의 다양한 유형을 밝힘으로써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안된 성인진입기 시기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나아가 부모-자녀 간의 친밀한 유대감이 자녀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대학생들을 위한 상담 및 교육현장에서 부모-자녀관계 지원 및 중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김남일 (2020).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 태도와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에서 조망수용의 매개효과 연구. **인문사회21**, 11(6), 1883-1895. doi:10.22143/hss21.11.6.133
- 김누리, 신나나 (2017). 성인진입기 여성의 부모애착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외로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0(2), 19-42.
- 김수정, 박혜준 (2020). 성인이행기 자녀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유형과 자아정체감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31(1), 211-233. doi:10.14816/sky.2020.31.1.211
- 김은정 (2015). 부모 자녀 관계를 통해서 본 20대 청년층의 성인기 이행 과정 연구. **가족과 문화**, 27(1), 69-116. doi:10.21478/family.27.1.201503.004
- 김은정, 이해란 (2017). 대학생이 지각하는 부모 양육태도와 사회불안의 관계: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2(3), 645-667. doi:10.17315/kjhp.2017.22.3.010
- 김지원, 이정윤 (2014). 부자유친성정과 대학생의 자아분화의 관계: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매개효과. **아시아교육연구**, 15(3), 97-120. doi:10.15753/aje.2014.15.3.005
- 민지애, 유금란 (2015). 대학생의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진로결정몰입의 관계: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9(1), 45-63. doi:10.21193/kjspp.2015.29.1.003
- 박아청 (1996). 한국형 자아-정체감검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5(1), 140-162.
- 박아청 (2003). '한국형 자아정체감검사'의 타당화 연구. **교육심리연구**, 17(3), 373-392.
- 박영신, 김의철, 한기혜 (2003). 아동과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지각: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9(2), 127-164.
- 소찬은, 한세영 (2021).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가 대학생 자녀의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정서인식명확성과 의도적 반추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4(3), 67-86. doi:10.35574/kidp.2021.9.34.3.67
- 송현옥 (2008).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간의 구조분석**.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효정, 이지희 (2018).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석 및 보호요인과 위협요인의 차이 분석. **한국웰니스학회지**, 13(4), 161-173. doi:10.21097/ksw.2018.11.13.4.161
- 오옥선 (2020). 대학생이 지각하는 모-자녀 갈등이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독립과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 469-490. doi:10.22251/jlcci.2020.20.2.469

- 유성경, 방지원, 임인혜, 최보윤, 김수영 (2020). 영유아기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의 부모역할 신념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 *여성연구*, 107(4), 109-141. doi:http://dx.doi.org/tws.2020.107.4.005
- 윤혜영, 강지현 (2015).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2), 405-423.
- 이용화, 김지현, 임소연, 채명옥, 이혜림, 오진아 (2014). 헬리콥터 양육에 대한 진화론적 개념 분석. *아동간호학회지*, 20(4), 237-246. doi:10.4094/chnr.2014.20.4.237
- 이지선, 정혜정 (2016).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와 자아분화 및 대인관계 유능성 간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1(1), 99-121. doi:10.21321/jfr.21.1.99
- 임정아, 조아미 (2018). 잠재프로파일 분석(LPA)을 이용한 부모양육방식 유형과 삶의 목표와의 관계. *한국청소년연구*, 29(1), 323-346. doi:10.14816/sky.2018.29.1.323
- 임정하, 정옥분 (2004). 한국적 양육행동 척도개발과 타당화 연구. *인간발달연구*, 11(4), 55-73.
- 장희순 (2020). 성인진입기 대학생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 개념명확성과 성인진입기 인식의 매개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7(3), 307-332. doi:10.16983/kjsp.2020.17.3.307
- 전선옥, 김정원 (2016). 대학생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인식이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연구*, 8(4), 131-148.
- 정순심, 문혁준 (2020).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심리적 독립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1), 1031-1046. doi:10.22251/jlcci.2020.20.11.1031
- 정옥분 (2017). *사회정서발달*. 서울: 학지사.
- 정옥분, 정순화 (2019). *부모교육*. 서울: 학지사.
- 최명선, 문은미 (2009). 대학생의 부자유친성정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6(1), 165-177.
-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인재 (2006).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 개발 연구 및 타당화 연구*(연구보고(수시과제) 06-R22).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최임숙, 윤석환 (2016). 전문대학 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자율성 지지, 심리적 통제와 자아정체감의 관계: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3(8), 167-194. doi:10.21509/kjys.2016.08.23.8.167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doi:10.1037/0003-066X.55.5.469

- Arnett, J. J. (2007). Emerging adulthood: What is it, and what is it good for?.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1*(2), 68-73. doi:10.1111/j.1750-8606.2007.00016.x
- Banchefsky, S., & Park, B. (2016). The “new father”: Dynamic stereotypes of fathers.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17*(1), 103-107. doi:10.1037/a0038945
- Berlin, K. S., Williams, N. A., & Parra, G. R. (2014). An introduction to latent variable mixture modeling (part 1): Overview and cross-sectional latent class and latent profile analyse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39*(2), 174-187. doi:10.1093/jpepsy/jst084
- Burnett, S., Gatrell, C., Cooper, C., & Sparrow, P. (2011). Fatherhood and flexible working: a contradiction in terms?. In Stephan Kaiser, Max Josef Ringlstetter, Doris Ruth Eikhof, & Miguel Pina e Cunha (Eds.). *Creating Balance?* (pp. 157-171). Springer. doi:10.1007/978-3-642-16199-5_9
- Clark, S. L. (2010). *Mixture modeling with behavioral dat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CA.
- Doumen, S., Smits, I., Luyckx, K., Duriez, B., Vanhalst, J., Verschueren, K., & Goossens, L. (2012). Identity and perceived peer relationship quality in emerging adulthood: The mediating role of attachment-related emotions. *Journal of adolescence, 35*(6), 1417-1425. doi:10.1016/j.adolescence.2012.01.003
- Hill, K. G., White, H. R., Chung, I. J., Hawkins, J. D., & Catalano, R. F. (2000). Early Adult Outcomes of Adolescent Binge Drinking: Person-and Variable-Centered Analyses of Binge Drinking Trajectorie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6), 892-901. doi:10.1111/j.1530-0277.2000.tb02071.x
- Kerr, M., Stattin, H., & Ozdemir, M. (2012). Perceived parenting style and adolescent adjustment: Revisiting directions of effects and the role of parental knowledge. *Developmental Psychology, 48*(6), 1540-1553. doi:10.1037/a0027720
- Marsiglio, W., & Roy, K. (2012). *Nurturing dads: Social initiatives for contemporary fatherhood.* Russell Sage Foundation. doi:10.5860/choice.50-1786
- Muthén, B. O., & Muthén, L. K. (2000). Integrating person-centered and variable-centered analyses: Growth mixture modeling with latent trajectory classe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6), 882-891. doi:10.1111/j.1530-0277.2000.tb02070.x

- Nelson, L. J., Padilla-Walker, L. M., Christensen, K. J., Evans, C. A., & Carroll, J. S. (2011). Parenting in emerging adulthood: An examination of parenting clusters and correlat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0*(6), 730-743. doi:10.1007/s10964-010-9584-8
- Rice, F. P., & Dolgin, K. G. (2009). *청소년 심리학 [Adolescent: Development, Relationships, and Culture]*(정영숙, 신민섭, 이승연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Schiffrin, H. H., Erchull, M. J., Sendrick, E., Yost, J. C., Power, V., & Saldanha, E. R. (2019). The effects of maternal and paternal helicopter parenting on the self-determination and well-being of emerging adult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8*(12), 3346-3359. doi:10.1007/s10826-019-01513-6
- Segrin, C., Wozidlo, A., Givertz, M., Bauer, A., & Murphy, M. T. (2012). The association between overparenting,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entitlement and adaptive traits in adult children. *Family Relations*, *61*(2), 237-252. doi:10.1111/j.1741-3729.2011.00689.x
- Smits, I., Soenens, B., Luyckx, K., Duriez, B., Berzonsky, M., & Goossens, L. (2008). Perceived parenting dimensions and identity styles: Exploring the socialization of adolescents' processing of identity-relevant information. *Journal of adolescence*, *31*(2), 151-164. doi:10.1016/j.adolescence.2007.08.007

ABSTRACT

Latent profiles of the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of college students

Choi, EunKyung* · Lim, JungH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profiles of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among college students in the context of current Korean society and to identify and explore any associations between profiles of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and identity development. For this purpose, a self-report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410 college student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means of Pearson's correlations, latent profile analysis, and one-way analysis of variance.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categorizing the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as perceived by college students based on intimacy, commitment, respect, and strictness factors in the relationship, the relationships were classified into five profiles. Five identified profiles were labeled as follows; strong (41.7%), moderate (45.1%), weak (3.4%) as well as the relationship with both parents, with strong relationship only with the father (1.5%) or only with the mother (8.3%). Second,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the maturity of identity among the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profiles. College students in the strong relationship with both parents' profile showed a higher level of maturity in ego-identity development compared to those of college students in the weak relationship with both parents' profil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can still serve as an important developmental resource for college students, to strengthen their maturity in ego-identity development.

Key words: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college student, emerging adulthood, ego-identity, latent profile analysis

*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Sustainable Living System,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